

북한의 전후 복구 3개년계획 수립과 소련의 개입

말렌코프 ‘신노선(New Course)’의 영향에 대한 재검토를 중심으로

조수룡*

본 연구는 북한의 전후 복구 3개년계획(1954~1956) 수립 과정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이른바 말렌코프 ‘신노선’이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재검토하였다.

경공업에 비중을 둔 복구를 전망한 3개년계획의 채택은 연안계 혹은 당내 비주류의 입장이 관철된 결과는 아니었다. 1953년 9월 북한 정부 대표단의 모스크바 방문 전까지 복구 계획은 중공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작성되고 있었다. 정부 대표단의 모스크바 방문에서 소련 측은 원조액 일부를 사용하여 경공업 기업소를 신설할 것과 과도한 공업화를 예상한 3개년계획의 수정을 요구하였다. 그 결과 12월에 열린 제6차 최고인민회의에서 전후 복구 방침은 “민족공업의 균형적 발전”으로 정리되었고, 1954년 4월 제7차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경공업에 비중을 둔 3개년계획 법령이 채택되었다.

이는 당시 전후 복구 노선 수립을 둘러싼 대립 구도가 당내 주류와 비주류보다는 조선로동당과 소련공산당 사이에서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정전 시기부터 연안계와 소련계가 경공업 중시 세력을 형성하여 김일성 및 당내 주류와 대립하고 있었다는 통념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전후 복구 3개년계획, 소련 원조, 말렌코프 ‘신노선’, 김일성, 박창옥

*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연구원.

1. 머리말

정전협정 직후 조선로동당은 전후 재건을 위한 일련의 복구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이 1953년 8월에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채택되었다. 북한의 공식 당사(黨史)는 이 회의에서 이른바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과 경공업·농업의 동시 발전 노선’이 확정되었다고 기술한다.¹⁾ 반면 1954년 4월에 열린 제7차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된 “인민경제복구발전3개년계획(이하 3개년계획)”은 1949년 대비 생산수단 생산을 1.3배, 소비재 생산을 2배로 성장하도록 규정하여 경공업에 비중을 둔 복구를 전망하였다.²⁾ 이미 1953년 12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6차 회의에서도 김일성은 복구 방침을 “민족공업의 균형적 발전”으로 규정하였다.³⁾

이와 같은 불일치에 대해 기존 연구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당내 주류 세력과 연안계와 소련계를 포함한 비주류 세력 간의 노선 갈등에 따른 것으로 이해하였다. 당내 주류가 중공업 우선 복구 노선을, 비주류가 경공업·농업의 균형 발전 노선을 각각 주장하였는데, 제6차 전원회의에서는 주류의 주장이, 제7차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비주류의 주장이 각각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노선 갈등의 배경으로 같은 시기 소련에서 등장한 말렌코프(Georgy Malenkov) ‘신노선(New

1) 『조선 로동당 력사 교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4), 312쪽.

2) 박창욱, “1954~56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복구발전 3개년계획에 관한 보고,” 『근로자』, 5호(1954);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서울: 선인, 2005), 608~609쪽.

3) 김일성,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과 중화인민공화국 및 인민민주주의 제 국가들에 파견하였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 사업경과에 관한 결론,” 『북한최고인민회의자료집』 I(서울: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1988), 637~640쪽.

Course)’의 영향이 강조되었다.⁴⁾

이와 같은 견해는 1970년대 오코노기 마사오에 의해 처음 제기된 것으로,⁵⁾ 국제 학계에서는 그의 영어 저작을 통해,⁶⁾ 국내에서는 서동만이 이를 소개함으로써⁷⁾ 지금까지 통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 같은 가설에 대해서는 백준기가 ‘신노선’의 성격 재검토 등을 주장하며 문제제기를 한 바 있지만,⁸⁾ 대부분의 후속 연구는 오코노기와 서동만의 견해를 받아들였다.⁹⁾

이제는 많은 연구가 이를 통설로 간주하고 있지만, 이 견해를 처음 제기하고 발전시킨 연구를 살펴보면 그 근거가 그다지 단단하다고 보

4)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605~610쪽.

5) 小此木政夫, “北朝鮮における対ソ自主性の萌芽 1953~1955: 教条主義批判と‘主体’概念,” 『アジア經濟』 第13卷 7号(1972).

6) Masao Okonogi, “North Korean Communism: In Search of Its Prototype,” in Suh Dae-Sook(ed.), *Korean Studies: New Pacific Currents*(Hawaii: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4).

7)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603~621쪽.

8) 백준기의 문제제기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말렌코프의 신노선이 중공업 우선 발전 노선을 폐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다른 하나는 공업 부문의 복구 건설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북한과 소련 측의 의견이 일치하였다는 점이다. 그는 이를 근거로 ‘전후 복구 노선을 둘러싼 북한 지도부 내의 대립’이라는 가설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백준기, “1950년대 북한의 권력갈등의 배경과 소련,” 『1950년대 남북한의 선택과 굴절』(서울: 역사비평사, 1998), 454~456쪽.

9) 대표적으로 다음을 들 수 있다. Baláz Szalontai, *Kim Il Sung in the Khrushchev Era: Soviet-DPRK Relations and the Roots of North Korean Despotism, 1953~1964*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Center Press with Stanford Univ. Press, 2005), pp.48~49; James F. Person, ““We Need Help from Outside”: The North Korean Opposition Movement of 1956,”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Working Paper*, Vol.52(2006), p.13; 이태섭, 『북한의 경제위기와 체제변화』(서울: 선인, 2009), 17쪽; 김보미, “북한의 전후복구 시기 사회주의 진영의 원조와 ‘주체’의 제기,” 『아세아연구』, 56권 4호(2013), 328~335쪽.

기는 어렵다. 우선 이들 연구는 당내 비주류로 분류한 연안계와 소련계가 ‘신노선’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는 전후 복구 노선 수립에서의 ‘내부 정책 갈등설’을 지지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이지만, 당내 비주류가 소련의 노선을 근거로 소비재 중시 노선을 주장하였다는 증거는 어디서도 발견할 수 없다.

‘내부 정책 갈등설’의 또 다른 근거는 ‘신노선’이 1953년 중후반 동유럽의 정책 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점이다. 오코노기에 따르면 6월에서 9월 사이에 동독,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이 각각 정책의 전환 또는 수정을 선언하였다. 이와 같은 흐름이 조선로동당에도 영향을 미쳐, 최창익·박창옥 등이 소비재 중시 노선을 주장한 배경이 되었다는 것이다.¹⁰⁾

그러나 라즐로 보르히에 따르면 동유럽에서 ‘신노선’은 자발적 수용이라기보다는 크레믈린의 강요에 의해 관철된 측면이 컸다.¹¹⁾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소련의 ‘신노선’이 북한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이 어떠한지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전후 복구 노선 및 경제 정책의 수립과 관련해서도 북·소 간의 원조 협상 과정, 전후 복구 3개년계획의 수립 과정, 작성된 계획의 내용과 같은 기본적인 사실 관계가 거의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통념은 재고의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하에 본 연구는 북한 전후 복구 3개년계획의 수립 과정을 살펴보고, 여기에 말렌코프 ‘신노선’이 어떤 역할을 하였는

10) 小此木政夫, “北朝鮮における対ソ自主性の萌芽 1953~1955,” pp.41~42.

11) László Borhi, *Hungary in the Cold War, 1945-1956: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Budapest: Central European University Press, 2004), pp. 229~232.

지 재검토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거의 정리된 적이 없는 3개년계획의 수립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른바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과 경공업·농업의 동시 발전’이라고 하는 전후 복구 노선의 실제 성격을 해명할 것이다. 아울러 이를 통해 3개년계획의 경공업 중시 노선이 말렌코프 ‘신노선’의 영향을 받은 당내 비주류와 주류 간 정책 갈등의 귀결이라는 기존 통설을 재검토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이는 계파 간 갈등과 경쟁을 강조하던 기존의 시각을 탈피하여 북·소 관계와 사회주의권 내 국제정치의 맥락에서 북한 사회주의와 경제구조의 형성을 이해해 보려는 시도가 될 것이다.

주요 자료로는 북한의 공식 간행물과 함께 러시아연방 대외정책문서보관소(АБПФ)와 대통령문서보관소(АПФ), 국립현대사문서보관소(РГАНД)에서 발굴된 북한의 3개년계획 관련 자료를 활용하였다.¹²⁾

2. 1953년 제6차 전원회의와 ‘신노선’ 재고

본격적인 전후 복구 계획의 수립과 실행은 1953년 3월 스탈린 사망 이후 휴전협상이 급진전되면서 시작되었다. 5월 5일 조선로동당 확대 정치위원회가 열려 정전 후 당 사업과 복구 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1953년 하반기 경제 계획, 3개년계획, 이후의 5개년계획에 이르는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¹³⁾ 1953년 6월 2일 내각 도시건설

12) 본 연구에서 활용한 구소련 자료는 국사편찬위원회가 2001년부터 수집해 온 것이다. 이들 자료의 전거 표기는 소장 정보(фонд, описание, папка, дело), 문서 제목, 쪽수(листы)의 순서를 따랐다. 자료 일부는 원 소장처의 소장 정보 일부를 누락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확인된 소장 정보와 문서 제목을 전거로 표기하였다.

성에서 평양시 복구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¹⁴⁾ 같은 달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애와 내각 부수장 허가이는 평양 주재 외교관들에게 북한의 피해 상황과 복구 수요 전반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은 중국이 향후 몇 년간 식량과 생필품을 제공할 것이며, 소련은 산업 복구에 원조를 제공하고, 체코슬로바키아는 트럭공장을 건설해 주기로 하였다고 언급하였다.¹⁵⁾ 이미 이때부터 북한과 우방국 사이에는 원조에 관한 논의가 오가고 있었으며, 소련은 자본재를, 중국은 소비재를 제공하는 방식의 암묵적 합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6일에는 김일성이 소련 대사 수즈달레프(S. Suzdalev)에게 산업 복구의 기간 및 규모를 확정하기 위한 소련 전문가 위원단의 초청을 준비 중이라고 통보하였다.¹⁶⁾

초청의 주된 목적은 산업 복구 계획 전반의 수립이 아니라, 북한 정부가 지정한 대상에 대한 복구 견적과 기간의 산출이었다. 전체적인 복구 계획 수립을 위한 산업의 실태 및 복구 가능성에 대한 조사 보고서가 이미 6월에 제출된 상황이었다. 소련대사관 참사 라자레프(S. Lazarev)가 작성한 이 보고서는 북한 국가계획위원회 자료에 기반한

13) 국사편찬위원회 엮음, 『북한관계사료집』(이하 『사료집』) 73(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13), 10쪽; 시모토마이 노부오(下斗米伸夫), 『모스크바와 김일성: 냉전기의 북한 1945~1961』, 이종국 옮김(서울: 논형, 2012), 147쪽.

14) “Report from a Conference Organized by the Government of the DPRK on the Issue of Implementing the Plan of Reconstruction for Pyongyang,” June 05, 1953, History and Public Policy Program Digital Archive, Polish Foreign Ministry Archive(<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4954>).

15) “Report of the Embassy of the People’s Republic of Poland in Korea,” July 16, 1953, History and Public Policy Program Digital Archive, Polish Foreign Ministry Archive(<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4953>).

16) 『사료집』 73, 27~28쪽.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서 라자레프는 북한 내각이 3개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 중이며, 그 과정에서 공장들의 실제 피해가 더욱 심각함을 확인하였다고 언급하였다.¹⁷⁾ 이미 북한 정부는 복구 계획의 수립을 위한 피해 및 실태 조사와 같은 기초 작업을 어느 정도 진척시키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의 피해는 전방위적이었지만 이미 예비적 수준의 복구 건적 또한 산출된 상태였다. 예를 들어 당시 북한의 금속공업을 대표한 황해제철소와 김책제철소는 완파된 용광로 3기와 반파된 2기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황해제철소는 3년 안에, 김책제철소는 1년 안에 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었다.¹⁸⁾ 금속공업 분야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기업소는 남포제련소였다. 이 공장은 거의 완전히 파괴되었기 때문에 복구에 필요한 시간도 확정되지 않았다. 기계공업의 상황도 비슷하였다. 전체 14개 기업소가 보유한 1,205대의 장비는 531대를 제외하고 모두 완파되었는데, 나머지 또한 마모와 노후가 심해 교체가 필요하였다. 보고서는 결론에서 이러한 실태 분석과 복구 계획이 대단히 예비적인 것임을 지적하였지만,¹⁹⁾ 동시에 이는 복구 계획 수립이 초기 단계부터 북한 정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17) АВПРФ, ф. 0102, Действующая промышленность КНДР и возможности ее восстановления(Июнь 1953 года), л.3.

18) 전망과는 달리 황해제철소는 1958년 4월, 김책제철소는 1955년 5월에 각각 1기의 용광로 복구를 완료하는 데 그쳤다. АВПРФ, ф. 0102, оп. 14, п. 75, д. 6, Дневник Посла СССР в КНДР А. М. Пузанова за период с 9 по 28 апреля 1958 г., лл.126~128.

19) АВПРФ, ф. 0102, Действующая промышленность КНДР и возможности ее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이를 토대로 주요 복구 대상을 선정한 북한 정부는 7월 30일 소련대사관에 복구 계획을 수립할 62명의 소련 전문가 초청을 요청하였다. 복구 대상은 황해제철소와 김책제철소 등 약 20여 개소에 달했다. 62명의 전문가는 중공업성에 34명, 화학건재공업성 18명(화학부문 12명·건재부문 6명), 경공업성 4명, 전력국 6명이 각각 배치될 계획이었다.²⁰⁾ 당시 북한 중공업성은 금속공업과 기계공업 분야만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공업 전체 분야에 배정된 전문가는 화학건재공업성과 전력국을 포함한 58명이었다. 북한 정부는 이미 계획 수립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중공업 중심의 복구를 구상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 정부의 이와 같은 구상은 소련의 원조에 의한 복구 대상의 선정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8월 7일 수즈달레프는 북한 측이 소련의 원조로 복구하기를 원하는 대상의 명단을 소련 정부에 보고하였다. 여기에 포함된 6개소의 복구 대상은 김책제철소, 성진제강소, 남포제련소, 홍남비료공장, 승호리시멘트공장, 수풍수력발전소였다. 경공업 기업소는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수즈달레프는 북한 정부의 복구 계획이 중공업에 치중되어 있고, 경공업과 농업의 발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였다.²¹⁾

하지만 수즈달레프가 보고한 계획은 전후 복구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한 당 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 이전의 것으로, 어디까지나 예비적인 것이었다. 8월 13일 김일성은 수즈달레프를 만난 자리에서 소련 정부가 10억 루블의 원조를 결정하기 전에 북한 정부가 이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몇 가지 이유로 아직 최종 계획을 수립하지

20) АВПРОФ, ф. 0102, оп. 9, п. 44, д. 4, лл. 55-57; АПРОФ, ф. 3, оп. 65, д. 779, лл. 3~6.

21) АПРОФ, там же, лл. 7~10.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남한과 관련한 군사적 문제, 1949년부터 소련이 제공한 차관의 청산 문제, 1954년 상품공급협정의 체결 문제 등이 이유였다. 김일성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8월 말경 모스크바를 방문하고 싶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²²⁾ 1949년부터 1953년까지 소련이 북한에 제공한 차관의 총규모는 2억 9,800만 루블에 달했기 때문에,²³⁾ 모스크바 방문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느냐는 복구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였다.

1953년 8월 5일에서 9일까지 전후 복구 계획을 논의한 당 중앙위원회 제2기 제6차 전원회의가 개최되었다. 회의에서는 복구 방침에 관한 김일성의 보고에서 회의 결론에 이르기까지 4일간이나 소요하며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²⁴⁾ 결국 복구 일정만을 결정하고, 중점 과제와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확정하지 못하였다.

회의에서 결정된 전후 복구 일정은 크게 반년에서 1년 사이의 공업 복구 건설 준비 단계, 복구 건설 3개년계획 단계, 전면적 공업화를 위한 5개년 단계의 세 시기로 이루어졌다.²⁵⁾ 이는 5월에 있었던 확대정치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확인한 것이었다. 난항을 겪은 것은 복구 우선순위의 결정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공식 당사를 비롯한 출판물은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 데 대한” 전후 복구 총노선이 제6차 전원회의에서 확정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²⁶⁾ 기존 연구 또한 김일성의 중공업 우선 복구 방침이

22) 『사료집』 73, 54~57쪽.

23) АВПРФ, ф. 0102, оп. 4, п. 47, д. 72, Справка о размерах помощи, оказываемой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е Советским Союзом и Китаем(15. XII. 53.), л. 116.

24)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1945~1961』, 604쪽.

25) 『사료집』 30, 363쪽.

논란은 겪었지만 회의에서 채택된 것으로 보았다.²⁷⁾ 하지만 그렇게 보기 어려운 몇 가지 근거가 존재한다.

첫째, 김일성은 회의 보고에서 중공업 우선 복구 방침을 밝혔지만, 회의 결론에서는 이를 전혀 다루지 않았다. 사후에 개작된 것이 분명한 보고에서 그는 “중공업의 선차적 복구 발전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전후 경제 건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회의로부터 한 달 이상 지난 뒤 공개된 결론에서는 복구 방침에 관한 내용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내부 자원의 동원, 노동력 확보와 같은 복구 방법론만 제시하였다.²⁸⁾ 결정서에도 “중공업의 선차적 복구 발전”과 같은 표현은 없었다.²⁹⁾

둘째, 우선 복구해야 할 중요 분야로 제철·기계·병기·조선·전기·건설 등의 중공업 분야와 방직·제지·식료품 등 경공업 분야를 적시하였지만, 이는 복구 대상을 모두 나열한 것에 불과했다. 이들 간의 우선순위나 선후 관계를 보여 줄 수 있는 복구 시한에 대한 언급은 제

26) 『조선 로동당 력사 교재』, 312쪽; 『전후 우리 당 경제 건설의 기본 로선』(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1), 3쪽.

27)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서울: 역사비평사, 2001), 76쪽;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604쪽; 윤경섭, “1950년대 북한의 정치갈등 연구”(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57~58쪽.

28) 김일성, “모든 것을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을 위하여: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6차 전원 회의에서 한 보고 1953년 8월 5일,” 『김일성 선집』 4(제2판)(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0), 9쪽; 김일성, “정전협정체결과 관련하여 전후 인민경제복구 발전을 위한 투쟁과 당의 급후 임무: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6차 전원 회의에서 진술한 보고 1953년 8월 5일,” 『전후 인민경제 복구발전을 위하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6); 김일성, “모든 것은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을 위하여!: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6차 전원 회의에서 진술한 결론,” 『근로자』, 9호(1953);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605쪽.

29) 『사료집』 30, 363쪽.

한적이었다.³⁰⁾

셋째, 소련대사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원회의 결정서 초안에는 “3개년계획의 기본 과업은 ‘무기 생산에서 경제적 중속을 겪지 않도록’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나라의 전면적 공업화를 위한 기초를 수립하는데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한다.³¹⁾ 이는 곧 중공업 중심의 복구라는 뜻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채택된 결정서에 그와 같은 내용은 들어 있지 않다. 대신 결정서에는 “공업화를 위한 기초를 수립하며 (...) 군수공업을 확장하며 인민의 물질문화 생활의 개선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전후 복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되었다.³²⁾ 중공업이나 경공업 어느 쪽에도 무게가 실리지 않은 표현이었다.

결국 제6차 전원회의 보고서에서 김일성이 제안한 “중공업의 선차적 복구 발전” 방침은 결정으로 채택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사회주의 또는 인민민주주의 국가에서 제안자의 보고가 결정으로 채택되지 않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더욱이 그 제안자가 김일성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반대가 상당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당내 주류의 중공업 중시 노선과 연안계 및 소련계의 경공업·농업 균형 발전 노선이 대립했다는 것이 잘 알려진 통념이다. 이것은 스탈린 사후 말렌코프의 ‘신노선’이 등장하여 동유럽뿐만 아니라 북한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³³⁾ 그러나 머

30) 위의 책, 363~374쪽.

31) АВППФ, ф. 0102, оп. 11, п. 65, д. 45, Справка о положении в КНДР(17 января 1955 года), л. 7.

32) 『사료집』 30, 363쪽.

33) 小此木政夫, “北朝鮮における対ソ自主性の萌芽 1953~1955: 教条主義批判と‘主体’概念”;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603~621쪽; Masao Okonogi, “North Korean Communism: In Search of Its Prototype,” p.187.

리말에서 언급한 것처럼 말렌코프의 ‘신노선’이 북한의 연안계나 소련 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근거는 불충분하다. 오코노기와 서동만은 스탈린의 중공업 중시 노선이 북한에서는 김두삼에 의해 ‘귀중한 교시’로 인용되었다고 언급하였는데, 이는 오히려 자신의 견해와 배치되는 진술이다.³⁴⁾

동유럽에서 ‘신노선’은 자발적 수용이라기보다는 크레믈린의 강요에 의해 관철된 측면이 컸다. 소련공산당 상무위원회(Presidium)는 동독의 울브리히트(Walter Ulbricht)를 소환하여 ‘신노선’의 채택을 요구하였다. 헝가리의 라코시(Mátyás Rákosi)도 모스크바에 소환되어 같은 정책의 채택과 수장직의 사임을 요구받았다.³⁵⁾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소련은 북한에 대해서도 ‘신노선’을 직접 관철하려 하였고, 일시적으로 성공하였다. 하지만 그것이 이때는 아니었다.

또한 말렌코프가 ‘신노선’을 공식화한 것은 1953년 8월 8일 소련 최고소비에트회의 연설로 알려져 있다.³⁶⁾ 이것이 5일에서 9일까지 열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 시간상으로도 맞지 않다. 연안계가 경공업과 농업의 균형 발전을 주장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남북의 통일을 염두에 둔 것이었으며, 소련계는 오히려 중공업 중시 노선을 대체로 지지하는 편이었다.³⁷⁾

34) 小此木政夫, “北朝鮮における対ソ自主性の萌芽,” p. 40;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606쪽.

35) László Borhi, *Hungary in the Cold War*, pp. 229~232.

36) 따찌야나 미하일로브나 짜모쉬나(Tatiana Mikhailovna Timoshina), 『러시아 경제사』, 이재영 옮김(서울: 한길사, 2006), 382쪽; 블라디슬라프 M. 주보크(Vladislav M. Zubok), 『실패한 제국 1: 냉전 시대 소련의 역사』, 김남섭 옮김(과주: 아카넷, 2016), 241쪽.

37) 조수형, “전후 북한의 사회주의 이행과 ‘자력갱생’ 경제의 형성”(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27~38쪽.

제6차 전원회의 결정서에서 경제 복구 과제를 제시하기에 앞서 정전협정의 성격을 규정한 것은 복구 노선 논쟁을 바라보는 새로운 착안점을 제공할 수 있다. 회의 결정서는 전후 인민경제 복구 과제를 제기하기에 앞서 정전협정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이에 따른 당 정치사업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개성 정전협정 체결의 결과에 다만 정전이 성립되었을 뿐이며 완전한 평화는 달성되지 못하였다. “우리조국 남반부에는 미군이 계속 남아 있으며 ‘북벌’을 계속 고창하고 있는 반인민적 리승만 괴뢰통치가 그대로 남아 있다.” 그러므로 적들이 다시 전쟁을 도발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정치적 사상적으로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로써 인민경제를 복구 건설해야 할 것이다.³⁸⁾

결정서는 정전으로 “완전한 평화”가 달성된 것이 아니며 “적들이 다시 전쟁을 도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정전기간을 시간적으로 최대한으로 리용하며”라는 표현은 정전이 일시적이라는 인식을 잘 보여준다.³⁹⁾ 당내 주류가 중공업, 그중에서도 기계공업을 비롯한 군수공업을 우선적으로 복구하고자 한 것은 이와 같은 인식에 따른 것이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결정서 초안에는 “무기 생산에서 경제적 종속을 겪지 않도록” 전면적 공업화를 위한 기초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가 삭제되었다.⁴⁰⁾ 대신 “군수공업을 확장하며 인민의

38) 『사료집』 30, 360쪽.

39) 위의 책, 360쪽.

40) АВПРФ, ф. 0102, оп. 11, п. 65, д. 45, там же, л. 7.

물질문화 생활의 개선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전후 복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중공업과 경공업 어느 쪽에도 무게가 실리지 않은 표현으로 대체되었다.⁴¹⁾ 이는 “경제적 종속”이라는 표현이 소련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군수공업의 우선적 복구 방침이 연안계 등의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연안계는 평화적·민주주의적 수단에 의한 통일을 추구하며, 이를 위한 방법으로 인민생활 수준에서 남한에 대한 우위 확보를 주장하였다. 훗날 김일성으로부터 “당을 소부르조아적 당으로 변생시키고 우리나라에서 소련과 미국에 대하여 중립정책을 실시하자고 하였다”고 비판받을 정도로⁴²⁾ 온건한 입장을 견지했던 연안계가 다시 전쟁에 대비하자는 주장에 동의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한편 소련계는 단일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김일성의 중공업 우선 복구 노선을 지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뒤에서 다루겠지만 제6차 전원회의에서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및 정치위원으로 부상한 박창옥은 당시까지 김일성의 가장 튼튼한 지지자 중 한 명이었다. 1953년 제6차 전원회의부터 당내 주류의 노선에 대한 이견 그룹이 연안계와 소련계를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이것이 1956년 8월 전원회의까지 이어졌다는 도식은⁴³⁾ 재고될 필요가 있다.

41) 『사료집』 30, 363쪽.

42) 김일성, “조선 인민군은 항일 무장 투쟁의 계승자이다: 조선 인민군 324 군부대 관하 장병들 앞에서 한 연설 1958년 2월 8일,” 『김일성 선집』 5(제2권), 344쪽.

43) 이태섭, 『북한의 경제위기와 체제변화』, 17쪽.

3. 북한 대표단의 모스크바 방문과 소련의 요구

논쟁의 여지만을 남긴 채 확정되지 못한 전후 복구 계획은 가장 중요한 자금원인 소련 측과의 협의도 필요로 하였다. 8월 3일 소련공산당 상무위원회에서는 북한 전후 복구에 대한 10억 루블의 원조를 결정하였다. 이는 제6차 전원회의 직후인 8월 11일 소련대사관을 통해 북한 정부에 공식 통보되었다.⁴⁴⁾ 원조 결정을 통보하면서 소련 측은 북한 측의 원조 사용 계획을 요청하였다. 김일성은 구체적인 복구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소련 방문을 희망하였다. 이에 따라 김일성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정부 대표단은 9월 1일 평양을 출발하여 10일 모스크바에 도착, 11일부터 19일까지 회담을 진행하였다.⁴⁵⁾

방문에 앞서 소련 측은 이미 북한 측에서 선정한 산업 시설의 복구에 대한 원조금의 사용을 승인한 상태였다.⁴⁶⁾ 북한이 국내 가용 자원을 활용하지 않고 원조를 최대한 이용하려는 경향과 중공업에 치우친 복구 계획에 대해 소련 내부에서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승인한 것은 당시로서는 소련 측이 북한 경제 정책의 전면적 수정까지는 요구할 의도가 없었음을 의미한다.

1953년 9월 북·소 회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해 주는 자료는 아직 발굴되지 않았다. 다만 사후에 작성된 보고서에 따르면 회담 시 소련 측은 북한 정부가 현실적인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급속한 공업화 노선을 추구하는 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고 한다. 전쟁으로 인해 위기 상황에 놓인 인민생활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공업과

44) АПРФ, ф. 3, оп. 65, д. 779, лл. 1~27.

45) 시모토마이 노부오, 『모스크바와 김일성』, 155쪽.

46) 『사료집』 73, 64~65쪽.

농업의 발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충고하였다.⁴⁷⁾ 이와 같은 정황은 북한의 문학작품에서도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북한의 전후 복구 과정을 다룬 소설 『변영의 길』은 북한 정부 대표단의 소련 방문에서 중공업 중시 노선을 둘러싼 북·소간의 견해차가 노출된 상황을 묘사한 바 있다.⁴⁸⁾

모스크바에서 회담이 진행되는 가운데, 평양에서는 다급한 일이 발생했다. 조선중앙은행 이사장 김찬은 수즈달레프를 찾아와 원조금 10억 루블의 용처를 변경할 필요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1954년 정상적인 식량 공급을 위해서는 쌀 20만 톤이 부족한데, 중국 측이 제공하기로 약속한 식량 20만 톤 대신 공산품을 제공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그는 만약 이 공산품을 담보로 농민들의 잉여 식량을 수매한다면 식량 부족은 해결되겠지만, 그러면 농민들이 북한 상품을 구입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상품 공급 및 재정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원조금 10억 루블 일부를 활용하여 소련으로부터 식량을 구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미 내각에서 이를 위한 결정안을 작성하여 모스크바에 있는 김일성의 비준을 받으려 한다고 언급하였다.⁴⁹⁾

모스크바에서 정부 대표단이 원조 용처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는 도중에 내각에서 급하게 협상안을 변경하려 시도한 정황은 누가 보아도 이해적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소련의 원조를 사용해 식량을 구입하려는 시도는 김일성에 의해 거부된 것으로 보인다. 9월 19일 발표한 회담 결과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은 식량 제공에 관한 어떤 표현도 포함되

47) АВПРОФ, ф. 0102, оп. 11, п. 65, д. 45, там же, л. 7.

48) 박용운, 『변영의 길』(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2001), 196~215쪽.

49) 『사료집』 73, 72~74쪽.

지 않았다.

훗날 김일성은 여러 차례 이러한 시도를 비난하였다.

반약 반당 종파 분자들이 떠벌이던 것처럼 우리가 형제 국가들의 원조로 일용품이나 천과 쌀 같은 소비품만 가져 왔더라면 그 당시는 잘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원조를 맹탕 때려 먹었더라면 오늘에 와서는 앞길이 캄캄하고 해마다 다른 나라에서 쌀이나 천을 얻어와야만 되었을 것입니다.⁵⁰⁾

반당 종파 분자들은 못 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공업이나 농업을 복구 발전시키지 말고 외국에서 주는 원조, 다시 말하자면 소련의 10억 루블, 중국의 8만억 원 기타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주는 원조로 쌀이나 천과 같은 소비품을 사다가 몇 해 동안 때려 먹자는 것입니다.⁵¹⁾

김일성은 이와 같은 시도가 ‘반당종파분자’들에 의한 것이라고 규정하였지만 이를 소련계의 조직적 움직임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예컨대 김찬이 협상안의 변경을 시도하던 당시, 애초 정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소련을 방문할 예정이던 박창옥은 와병으로 평양에 잔류하였다. 병문안 차 방문한 수즈달레프가 소련의 농업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대해 떠보듯이 언급하자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에게는 그럴 겨를이 없다. 우리의 임무는 공업을 되살리는 것이다.
현재 조선 인민은 열성적으로 일하고 있다, 공업이 복구될 때까지는 부족

50) 김일성, “경공업의 금후 발전을 위하여: 경공업성 열성자 회의에서 한 연설 1958년 1월 29일,” 『김일성 선집』 5(제2판), 281~282쪽.

51) 김일성, “조선 인민군은 항일 무장 투쟁의 계승자이다,” 328쪽.

한 것이 있어도 참아야 한다.⁵²⁾

적어도 당시 소련계 중 최고위직에 있던 박창옥은 김일성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었다. 허웅배의 수기에 따르면 1953년 남로당과 숙청에 앞장선 박창옥은 박금철, 박정애, 박영빈과 함께 러시아어로 ‘개(犬)’라는 의미의 ‘사박가(собака, 사바카)’라고 불릴 만큼 김일성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인식되었다.⁵³⁾ 소련 대사의 눈에도 김일성과 박창옥은 매우 긴밀한 사이였다. 1954년 초 박창옥은 김일성이 내각 주요 직위의 인사이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수즈달레프에게 통보하였다. 수즈달레프는 김일성이 이 문제를 정치위원회에서 제기하지 않고 오직 박창옥과 논의한 것이 인상적이라고 기록하였다.⁵⁴⁾ 서동만은 1954년 3월 박창옥의 국가계획위원장 임명이 원조를 의도대로 집행하기 위한 소련 측의 조건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는데,⁵⁵⁾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1953년 9월 19일 “소련 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대표단 간의 회담에 관한 쏘련-조선 커뮤니케”를 통해 10억 루블의 용처가 합의되었다. 북·소 양국은 10억 루블의 원조 중 3억 루블 이상을 사용하여 17개의 공업기업소를 복구 또는 신설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6개 중공업 시설 외에, 평양방직공장의 복구와 평양건방직 공장, 육류종합공장, 생선통조림공장, 염산공장, 염색공장, 트랙터수리

52) 『사료집』 73, 71쪽.

53) 林隱, 『北韓 金日成王朝 祕史: 金日成 正傳』(서울: 한국양서, 1982), 211쪽.

54) АВІРФ, ф. 0102, оп. 10, п. 52, д. 8, Дневник посла СССР в КНДР Суздальева С. П. с 1 по 31 января 1954 г. лл. 18-19.

55)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608쪽.

공장, 중앙라디오방송국의 신규 건설이 추가로 합의되었다.⁵⁶⁾ 기존 6개 복구 대상이 모두 중공업 기업소인 데 비해, 신규 건설을 합의한 대상은 대부분 경공업 기업소였다. 북한 측의 중공업 우선 복구 방침과 소련 측의 경공업 투자 확대 요구가 경공업 기업소의 신규 건설로 절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외에 1949년부터 53년까지 소련이 북한에 제공한 차관 총 2억 9,800만 루블은 1957년부터 10년 내 상환하는 것으로 유예되었고, 이자는 2%에서 1%로 조정되었다. 또한 1950~53년 기간 동안 소련 정부가 북한에 비무역 형태로 지불하여 발생한 부채 약 7,300만 루블에 대해서는 50%를 탕감하고, 나머지는 1957년 1월부터 2년간 상환하기로 하였다.⁵⁷⁾ 북한 측이 모든 기존 차관의 탕감을 기대하고 협상에 임했다면, 그에 크게 못 미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56) АВПРФ, ф. 0102, оп. 4, п. 47, д. 72, там же, лл. 115~200; “소련 정부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 대표단 간의 회담에 관한 소련: 조선 커뮤니케,” 『조선중앙연감 1954~1955년판』(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6), 77쪽; 김일성, “소련 중화인민공화국 및 인민민주주의 체국가들을 방문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의 사업경과 보고,” 620쪽. 3개년계획 기간 동안 기업소 복구 건설에 실제 집행된 원조는 더 늘어났다. 총 21개 복구 대상에 4억 루블이 배정되었다. 여기에는 설비의 공급, 설계도의 제공, 기타 기술 원조가 포함되었다. 나머지 6억 루블은 기타 설비, 물자, 식량 등의 공급에 배정되었다. АВПРФ, ф. 0102, Протокольная запись совещания дипкорпуса в КНДР по вопросу о взаимном обмене информацией относительно выполнения соглашений по безвозмездной помощи Корею(24 января 1956 года), л. 3.

57) АВПРФ, ф. 0102, оп. 4, п. 47, д. 72, там же, л. 115.

4. “3개년계획 초안”의 경공업 우선 노선

1953년 12월 20~22일 정부 대표단의 소련·중국·동유럽 방문 경과를 보고하기 위한 제6차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되었다. 김일성은 순방 경과 보고에서 전후 복구 사업의 중요한 특징이 “인민생활을 급속히 개선 향상시키기 위한 경공업 부문의 많은 공장들을 확장 또는 신설”하는 데 있다고 언급하였다. 경공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한 소련과의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 또한 회의 결론에서는 “중공업을 점차적 보조로써 발전시키며 (...) 우선 대량적으로 인민생활안정을 위한 생활필수품 생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오히려 경공업의 발전에 무게 중심이 실린 발언으로, 제6차 전원회의에서 밝힌 김일성의 중공업 중시 방침의 후퇴임이 분명했다. 제6차 전원회의에서 이 방침이 논란에 부딪히며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과는 달리, 소련 방문 이후 북한 정부의 방침은 “민족공업의 균형적 발전”으로 정리되었다.⁵⁸⁾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북한 내각은 1953년 말부터 1954년 초에 걸쳐 인민생활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 두 차례에 걸친 소비품 가격 인하 조치의 결과, 1954년 상반기에는 1953년 상반기 대비 국영 상점에서는 44.2%, 협동조합 상점에서는 38.8% 가격이 하락하였다.⁵⁹⁾ 1953년 12월 15일에는 내각 결정 제200호로 농민

58) 김일성, “소련 중화인민공화국 및 인민민주주의 제국가들을 방문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의 사업경과 보고,” 617~637쪽; 김일성,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과 중화인민공화국 및 인민민주주의 제 국가들에 파견하였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 사업경과에 관한 결론,” 『북한최고인민회의자료집』 I, 637~640쪽.

59) АВІР, ф. 0102, оп. 10, п. 58, д. 50, О Выполнении народнохозяйственного

들의 현물세 및 각종 대여곡의 미납분을 면제하고, 육류 의무 수매제를 폐지하였다. 1954년 1월 15일에는 내각 결정 제3호로 영세 농민에게 총액 19억 원의 융자를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배급 명단에 의한 상품 배급제 대신 배급표제를 도입하였고, 1954년 2월 23일에는 내각 결정 제32호로 노동자 사무원에게 기본임금의 평균 25%에 해당하는 가급금 지불 제도를 신설하였다.⁶⁰⁾ 인민생활 수준의 개선을 위한 조치들이 모스크바 방문 직후에 이어진 것은 그것이 소련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음을 짐작케 한다.⁶¹⁾

실제로 북한 국가계획위원회와 중앙통계국에 배치된 소련 고문이자 작성한 보고서는 북한 정부와 조선로동당이 인민경제계획에서 과도한 공업화를 예상한 오류를 시정한 후, 3개년계획을 검토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⁶²⁾ 제6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이 제시한 방침은 소련 정부에 의해 오류로 간주되었고, 3개년계획은 균형 발전 방침에 입각하여 작성되었다는 것이다.

1954년 2월 6~7일 내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 복구발전 3개년계획 초안 작성을 위한 주요 지표”(이하 “3개년계획 초

плана КНДР за первое полугодие 1954 года(сентябрь 1954 год), л. 283

60) АВПРФ, ф. 0102, оп. 10, п. 58, О некоторых трудностях восстановительного периода в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е(26 июля 1954 года), л. 126; 『조선중앙년감 1954~1955년판』, 67~70쪽.

61) 샬론타이는 1954년 초 실시된 노동자 임금 인상이 1953년 중반 동유럽 국가들이 채택한 ‘신노선’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당 지도부 일부가 소련이나 동유럽으로부터 ‘신노선’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인민생활 수준의 향상을 위한 각종 조치는 1953년 9월 북한 대표단의 모스크바 방문 시 소련공산당 지도부가 3개년계획의 재검토와 함께 직접 요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Baláz Szalontai, *Kim Il Sung in the Khrushchev Era*, p. 48.

62) АВПРФ, ф. 0102, оп. 10, п. 58, там же, лл. 125~126.

<표 1> “3개년계획 초안”의 공업생산 전망치

단위: 백만 원(1948년 가격 기준)

		1949	1953	1954 (계획)	1955 (계획)	1956 (계획)	1956년의 %	
							1949년 대비	1953년 대비
총생산	거래세 포함	32,839	19,139	30,991	40,430	50,098	152.5	261.7
	거래세 제외	29,927	17,317	27,657	36,007	44,487	148.6	256.8
‘A’그룹		18,503	7,908	12,323	17,042	21,589	116.6	273.0
‘A’그룹의 %		61.8	45.7	44.5	47.3	48.5		
‘B’그룹		11,424	9,409	15,334	18,965	22,898	200.4	243.3
‘B’그룹의 %		38.2	54.3	55.5	52.7	51.5		
국영공업		30,964	16,832	28,646	37,644	46,822	151.2	278.1
협동적 소유 공업		1,875	2,307	2,345	2,786	3,276	174.7	142.0

자료: АВГРФ, ф. 0102, оп. 10, Основные показатели к составлению проекта 3-летнего плана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и развития народного хозяйства КНДР на 1954-1956 г.г., одобренные кабинетом министров КНДР(6-7 февраля 1954 г.).

안”)를 비준하였다. 그동안 연구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 초안에는 이러한 방침의 변화가 그대로 반영되었다. “3개년계획 초안”에서 계획한 공업생산 전망은 <표 1>과 같다.

“3개년계획 초안”은 1949년에 비해 공업총생산은 152.5%, 생산수단 생산(‘A’그룹)은 116.6%, 소비재 생산(‘B’그룹)은 200.4%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명백히 경공업의 발전에 무게 중심이 실린 계획이었다.

3월 21~23일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은 “3개년계획 초안”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런데 그가 언급한 초안의 수치는 1956년까지 1949년에 비해 공업총생산 153%, 중공업 120%, 경공업은 137%, 화학건재공업 90%로 성장하는 것이었다.⁶³⁾ “3개년계획

<표 2> 3개년계획 전망치의 불일치

단위: %(1949년 대비 1956년 생산액)

	3개년계획 초안 (1954년 2월)	3월 전원회의 보고 (1954년 3월)	3개년계획 법령 (1954년 4월)
공업총생산	152.5	153	약 150
생산수단 생산	116.6	120	약 130
소비재 생산	200.4	137	약 200

자료: АВІРФ, ф. 0102, оп. 10, Основные показатели к составлению проекта 3-летнего плана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и развития народного хозяйства КНДР на 1954~1956 г. г.; 김일성, “산업, 운수 부문에서의 제 결합들과 그를 시정하기 위한 당, 국가 및 경제 기관들과 그 일꾼들의 당면 과업,” 4~5쪽; 『1954~1956년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인민 경제 복구 발전 3개년 계획에 관한 법령』, 8쪽.

초안”과 비교하면 공업총생산과 중공업 생산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경공업 생산 목표는 크게 축소된 수치이다.

4월 23일 최고인민회의에서 비준된 3개년계획 법령은 1956년 공업 총생산을 1949년에 비하여 1.5배, 생산수단 생산은 1.3배, 소비재 생산은 2배로 달성할 것을 각각 규정하였다.⁶⁴⁾ 김일성이 3월 전원회의에서 언급한 초안이 아니라, 2월의 “3개년계획 초안”에 가까운 수치였다. 이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기존 연구는 3월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이 언급한 것과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비준된 수치의 차이가 중공업 우선 성장 노선과 경공업 우선 성장 노선의 진퇴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즉 3월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중공업 중시 방침에 입각한 초안이 대폭 후퇴하여, 4월 최고인

63) 김일성, “산업, 운수 부문에서의 제 결합들과 그를 시정하기 위한 당, 국가 및 경제 기관들과 그 일꾼들의 당면 과업: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1954년 3월 전원 회의에서 진술한 보고,” 『근로자』, 4호(1954), 4~5쪽.

64) “1954~1956년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인민 경제 복구 발전 3개년 계획에 관한 법령,” 『근로자』, 5호(1954), 8쪽.

민회의에서는 소비재 생산 목표가 137%에서 200%로 수정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3월 전원회의에서의 내각 인사 개편에 따라 국가계획 위원장이 정준택에서 박창옥으로 교체된 상황 변화 또한 근거로 제시되었다.⁶⁵⁾

하지만 새로이 발견된 “3개년계획 초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내각이 2월에 이미 소비재 생산 목표를 20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3월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이 제시한 137%의 목표는 어떻게 된 것일까? 당내 주류와 비주류의 두 가지 초안이 존재하였거나, 아니면 초안이 여러 차례 수정되었던 것일까? 137%의 목표를 설정한 초안이 존재했다면, 확정된 3개년계획에서는 목표를 200%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김일성의 발언은 이후 판본에서 개작되거나, 아니면 계속 개작되지 말았어야 한다. 그런데 1956년 출판된 『전후 인민경제복구발전을 위하여』에는 그대로 ‘137%’로 기재되었고, 1960년판 『김일성 선집』에서는 ‘200%’로 개작되었다.⁶⁶⁾ 아울러 소비재 생산 목표를 200%로 규정한 3개년계획은 이미 3월 31일 내각 결정 제57호로 확정된 상태였다.⁶⁷⁾ 3월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이 보고 연설을 한 23일 이후 수정되었다고 보기에는 시간상 무리가 따른다. 그리

65)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606~609쪽.

66) 김일성, “산업, 운수 부문에서의 제 결합들과 그를 시정하기 위한 당, 국가 및 경제 기관들과 그 일꾼들의 당면 과업: 1954년 3월 21일 조선 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진술한 보고,” 『전후 인민경제복구발전을 위하여』, 127~128쪽; 김일성, “산업 운수 부문에서의 결합들과 그 시정 대책에 대하여: 조선 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한 보고 1954년 3월 21일,” 『김일성 선집』 4(제2판)(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0), 93쪽.

67) АВВРФ, ф. 0102, оп. 10, О трехлетне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плане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и развития народного хозяйства КНДР на 1954~1956 г.г.(31 марта 1954 г.), л. 1.

고 소비재 생산 목표가 수정되었다면 그에 상응하여 공업총생산 목표도 수정되어야 하지만, 김일성의 연설과 3개년계획 법령의 수치는 각각 153%와 1.5배로 차이가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3개년계획의 소비재 생산 목표는 2월의 “3개년계획 초안”에서 설정한 200%가 계속 유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김일성이 제시한 ‘137%’라는 수치는 고의 또는 착오에 의해 2월 이전에 작성된 초안의 것을 사용했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어떤 이유에선지 그것이 1956년판에서도 유지되다가, 1960년판에서는 확정된 3개년계획의 수치에 맞추어 개작된 것이다. 만약 2월 이전에 작성된 또 다른 초안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1953년 9월 소련 방문 이전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 요컨대 3개년계획은 1954년 3월 전원회의 이후가 아니라, 소련·중국 등과의 원조 협상이 합의된 이후인 1953년 12월에서 1954년 2월 사이에 경공업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수정된 것이다.

이는 계획의 수정이 북한 지도부 내부의 논쟁에 따른 것이 아니라 소련 측의 요구에 응한 것임을 보여준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1953년 소련 방문에서 기존 중공업 중심의 복구 계획에 경공업 공장을 추가로 신설할 것이 합의되었고, 이것이 3개년계획에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정황은 중공업 중시 노선과 경공업 중시 노선이 제6차 전원회의 때부터 대립하고 있었으며, 3개년계획의 채택은 3월 전원회의 이후 후자의 입장이 관철된 결과라는 기존 견해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다.⁶⁸⁾ 3개년계획에 경공업 중심의 성장 노선이 관철된 것은 당내의 정책 갈등보

68) 오코노기 마사오와 서동만은 모스크바와 평양 사이에 명확한 대립이 있었다기보다는 양자의 이견이 북한 내부 정치에서 증폭하여 나타났다고 본다. 小此木政夫, 「北朝鮮における対ソ自主性の萌芽」, p.38;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606~609쪽.

다는 소련의 요구가 수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한 가정하에서 3개년계획에 대한 말렌코프 ‘신노선’의 영향도 보다 명확히 이해될 수 있다. 말렌코프 노선은 조선로동당 내 비주류에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북한 대표단의 소련 방문 시 소련 지도부에 의해 직접 관철된 것이다.

5. 3개년계획의 채택과 절충적 노선

전후 복구 3개년계획의 채택을 앞두고 열린 1954년 3월 전원회의에서는 내각의 진용이 새롭게 갖추어졌다. 그동안 이 인사 개편은 대체로 제6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중공업 중시 방침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소련계를 대표한 박창옥이 국가계획위원장에게, 연안계를 대표한 최창익이 재정상에 취임한 것이 주요 근거로 제시되었다.⁶⁹⁾ 그러나 당시 박창옥은 김일성의 비판자가 아니라 오히려 강력한 지지자 중 한 명이었다는 점은 앞서 살펴보았다. 따라서 3월 전원회의에서 있었던 경제 각료 개편의 맥락 또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을 살펴보면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전문가 출신, 이른바 테크노크라트가 주요 보직에서 물러나고, 그 자리를 만주파·연안계·소련계와 같은 정치인 그룹이 차지한 것이다. 자리에서 물러난 이들 중, 상업상 리주연과 재정상 윤공흠을 제외한 국가계획위원장 정준택, 중공업상 김두삼, 경공업상 리중옥, 농업상 박문규, 화학건재공업상 백홍

69)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608쪽.

권은 모두 전문가 또는 기술자 출신이었다. 그리고 새로 보임한 인사들은 모두 정치인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신임 국가계획위원장 박창옥, 경공업상 박의완, 농업상 김일, 재정상 최창익, 상업상 윤공흠은 말할 것도 없고, 중공업상 정일룡과 화학건설공업상 정준택은 기술자 출신이지만 정치인과 같은 비중을 가진 인사였다.

<표 3>에서 나타나는 내각 개편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부수상들의 상 겸직이었다. 3월 전원회의 이전까지 부수상은 박의완, 정일룡, 최창익, 홍명희, 최용건으로, 민족보위상 최용건을 제외하면 내각의 상을 겸직하지 않았다. 그런데 3월 전원회의에서는 박창옥과 김일이 추가로 부수상이 됨과 동시에, 홍명희를 제외한 모든 부수상이 내각의 각 성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 개편의 목적은 내각과 상의 지도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이제 막 시작된 전후 복구 사업의 난맥상에 따른 것이었다. 1954년 1/4분기 인민경제계획 실행은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었다. 1월과 2월에는 계획 목표를 각각 87%와 84%밖에 수행하지 못했다. 3월 실적은 어느 정도 개선되었지만 1/4분기 전체 계획은 98% 수행에 그쳤다.⁷⁰⁾ 1954년 1/4분기 조업 중인 267개 주요 기업 중 계획을 달성한 것은 149개 기업에 불과했다. 중공업성에서 계획을 달성한 것은 101개 기업 중 59개, 경공업성에서는 84개 기업 중 52개였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내각 각 성의 관료주의적 사업 방식과 전 사회적으로 만연한 부정·부패였다. 예를 들어 중공업성은 1953년에 1일 평균 220건, 농업성은 160건의 명령 문서를 송부했다. 내무성은 1953년 1월에서 9월 간 2,842건의 횡령과 총액 6억 9,400만 원의公款 유용

70) АВПРОФ, ф. 0102, оп. 10, п. 58, д. 50, там же, л. 267.

<표 3> 1954년 3월 전원회의에서의 내각(경제 분야) 개편

개편 전		개편 후	
부수상	박의완(소)	부수상 겸 국가계획위원장	박창옥(소)
부수상	정일룡(전)	부수상 겸 농업상	김일(만)
부수상	최창익(연)	부수상 겸 경공업상	박의완(소)
무역상	진반수(연)	부수상 겸 중공업상	정일룡(전)
상업상	리주연(기)	부수상 겸 재정상	최창익(연)
재정상	윤공흠(연)	무역상	진반수(연)
중공업상	김두삼(전)	상업상	윤공흠(연)
경공업상	리종옥(전)	전기상(신설)	김두삼(전)
철도상	김희일(전)	철도상	김희일(전)
농업상	박문규(전)	수산상(신설)	주황섭(기)
체신상	박일우(연)	체신상	박일우(연)
도시경영상	주황섭(기)	도시경영상(폐지)	-
화학건재공업상	백홍권(전)	화학건재공업상	정준택(전)
노동상	김원봉(기)	노동상	김원봉(기)
국가계획위원장	정준택(전)	국가건설위원장	김승화(소)
국가건설위원장	김승화(소)		

자료: АВІРФ, ф. 0102, Структур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аппарата КНДР(август 1953 г.), лл. 8-9; Dea-Sook Suh, *Korean Communism 1945~1980: A Reference Guide to the Political System*(Hawaii: University Press of Hawaii, 1981), pp. 458-483; 『사료집』 30, 518-519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령 및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정령집(三)』, 17~18쪽;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947~955쪽.
출신별 약자: (만)-만주 출신, (연)-연안 출신, (소)-소련 출신, (전)-전문가·기술자 출신, (기)-기타

사실을 밝혀내었다. 또한 일부 경제조직을 검열한 결과, 해당 조직의 세무관계 노동자 90% 정도가 뇌물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⁷¹⁾ 1954년 말 소련대사관이 작성한 보고서는 북한의 지도간부들은

71) АВІРФ, ф. 0102, оп. 10, п. 58, О некоторых трудностях восстановительно го периода в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е(26 июля 1954 года), лл. 195~199.

아직 인민경제계획을 수립하고 통제할 능력이 없다고 평가하였다.⁷²⁾

김일성은 이미 1954년 초부터 내각의 경제 사업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었다. 수즈달레프에 따르면 김일성은 박창옥에게 내각의 불만족스러운 사업 수행으로 인해 복구가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털어놓았다. 김일성은 특히 중공업성·경공업성·농업성·상업성의 사업 부진을 지적하였다. 그는 당시 내각 각 성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박창옥을 제1부수상으로, 김일을 부수상 겸 농업상으로, 박의완을 부수상 겸 경공업상으로, 정일룡을 부수상 겸 중공업상으로, 최창익을 부수상 겸 상업상으로 임명하려고 하였다.⁷³⁾ 3월 전원회의에서의 내각 개편은 김일성에 의해 이미 1월부터 구상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와 같이 중요한 제안을 정치위원회에 제기하기에 앞서 박창옥하고만 의논하였다.

그러나 김일성이 이 제안을 공식적으로 제기하였을 때, 정치위원회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았다. 박정애와 김두봉은 당 부위원장인 박창옥과 김일이 내각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그들은 이 조치가 당 중앙위원회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여겼다. 박창옥 또한 동의하지 않았던 것 같다. 이후 김일성은 박창옥에게 국가계획위원장으로 일하는 데 동의할 것을 오랫동안 설득했다고 한다. 김일성은 정치위원회에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하였고, 비로소 동의를 얻을 수 있었다.⁷⁴⁾

3월 전원회의 이전에 전개된 이와 같은 상황을 통해 기존에 알려진

72) АВПРФ, ф. 0102, оп. 10, п. 58, д. 50, Справка о положении в КНДР(1954, 12. 18), л. 295.

73) 김일성의 구상은 3월 전원회의에서 대부분 관철되었지만, 최창익은 상업상이 아닌 재정상에 임명되었다. АВПРФ, ф. 0102, оп. 10, п. 52, д. 8, там же, лл. 18~19.

74) РГАНИ, ф. 5, оп. 28, д. 410, лл. 75~76.

노선 갈등의 구도와는 다른 맥락에서 인사 개편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정준택, 리종옥, 김두삼, 박문규, 백홍권과 같은 기술자·전문가 출신이 책임자로 있던 내각의 주요 경제부처에 당 사업에 주력하고 있던 정치 간부를 대거 배치함으로써 내각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당 부위원장인 박창옥과 김일이 국가계획위원장과 농업상으로 이동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내각 부수장이면서 당 정치위원 또는 상무위원을 겸하고 있던 최창익, 정일룡 등이 재정상과 중공업상을 겸직하게 된 것 또한 마찬가지로 맥락의 인사였다. 부진한 전후 복구 사업을 개선하기 위해 내각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김일성이 박창옥을 비롯한 정치위원회를 설득한 끝에 이 개편안이 결정된 것이다. 따라서 3월 전원회의에서의 내각 개편을 경공업 중시 세력의 대두로 보거나, 박창옥의 국가계획위원장 취임이 소련의 요구조건이었다는 해석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⁷⁵⁾

오히려 박창옥의 국가계획위원장 취임은 정부 대표단의 소련 방문 이후 저지된 중공업 중시 노선이 부활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1956년 박창옥의 회고에 따르면 그의 국가계획위원장 취임은 김일성과의 관계를 더욱 가깝게 만들었다. 경제 복구와 관련된 모든 사안은 국가계획위원회가 주도한 내각에서 결정하였다.⁷⁶⁾ 소련 측의 요구에 의해 경공업의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작성된 “3개년계획 초안”은 박창옥의 국가계획위원장 취임 이후 중공업 부문 목표가 다소 확대되는 방향으로 수정되고 있었다. 3월 31일 내각 결정 제57호로 확정된 3개년계획의 공업 부문 총생산 전망은 <표 4>와 같다.

75) 小此木政夫, 「北朝鮮における対ソ自主性の萌芽 1953~1955」, pp.41~42;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607~608쪽.

76) РГАНИ, ф. 5, оп. 28, д. 410, л. 76.

<표 4> 3개년계획(내각결정 제57호, 1954.3.31)의 공업생산 전망치

단위: 백만 원(1948년 가격 기준)

		1949	1953	1954 (계획)	1955 (계획)	1956 (계획)	1956년의 %	
							1949년 대비	1953년 대비
총생산	거래세 포함	32,839	19,139	30,829	40,738	51,170	155.8	267.3
	거래세 제외	29,927	17,216	28,304	37,441	46,873	156.6	272.3
'A'그룹		18,503	7,621	13,068	18,690	24,197	130.8	317.5
'A'그룹의 %		61.8	44.3	46.2	49.9	51.6		
'B'그룹		11,424	9,595	15,236	18,751	22,676	198.5	236.3
'B'그룹의 %		38.2	55.7	53.8	50.1	48.4		
국영공업		30,964	16,832	28,476	37,906	47,788	154.3	283.9
협동적 소유 공업		1,875	2,306	2,353	2,832	3,382	180.3	146.7

자료: АВПРФ, ф. 0102, оп. 10, О трехлетне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плане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и развития народного хозяйства КНДР на 1954-1956 г.г.(31 марта 1954 г.), л.6.

이를 <표 1>에서 제시한 “3개년계획 초안”의 수치와 비교하면 생산수단 생산 목표치의 변화가 가장 눈에 띈다. 생산수단 생산, 즉 ‘A’그룹 생산의 1956년 목표치는 215억 8,900만 원에서 241억 9,700만 원으로, 1949년 대비 116.6%에서 130.8% 달성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에 비해 소비재 생산, 즉 ‘B’그룹 생산의 같은 해 목표치는 228억 9,800만 원에서 226억 7,600만 원으로, 1949년 대비 200.4%에서 198.5%로 소폭 감소하였다.

심지어 내각에서 3개년계획을 확정된 이후에도 중공업 부문 목표치의 상향 조정은 계속되고 있었다. 박영빈은 제7차 최고인민회의를 앞두고 소련 대리대사 라자레프에게 중공업성·화학건설공업성을 비롯한 일부 부처가 보조금 증액을 요구하면서 계획을 수정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⁷⁷⁾ 소련의 요구에 따라 정립된 경공업 중시 방침을 흔들 정도

는 아니었지만, 3월 전원회의 이후 중공업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시키는 방향의 내부적 압력이 지속적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1954년 4월 제7차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된 3개년계획은 제6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이 제시한 중공업 우선 복구 방침에, 경공업 투자 확대를 주문한 소련의 권고, 그리고 3월 전원회의 이후 중공업 중시론자의 지속적 압력이 절충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택된 3개년계획이 전반적으로 경공업 중심의 발전을 전망하고 있다는 점은 명백하였다. 하지만 3개년계획의 수정을 위한 당 주류의 노력도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6. 맺음말

전후 조선로동당 내 주류 세력은 중공업에 비중을 둔 전후 복구 계획을 세우고자 하였다. 이러한 방침은 복구 우선순위를 둘러싼 연안계와의 견해차로 인해 1953년 당 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합의되지 못하였다. 오히려 1954년 4월 채택된 3개년계획은 경공업에 비중을 둔 복구를 전망하였다.

그러나 3개년계획의 채택이 이른바 말렌코프 ‘신노선’의 영향을 받은 연안계 혹은 비주류의 입장이 관철된 결과는 아니었다. 연안계가 중공업 중심의 불균형 성장 노선에 반대하기는 했지만 이는 통일 전망의 차이에 따른 것이었으며, 당시 소련계는 알려진 것과 달리 김일성

77) АВПРФ, ф. 0102, оп. 10, п. 52, д. 8, Дневник временного поверенного в делах СССР в КНДР Лазарева С. П. с 1 по 24 апреля 1954 г. лл. 71~72.

의 입장을 지지하는 편에 가까웠다. 비록 제6차 전원회의에서 중공업 중심의 복구 방침은 확정되지 못하였지만, 1953년 9월 정부 대표단의 모스크바 방문 전까지 복구 계획은 중공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작성되고 있었다. 따라서 당내 주류와 연안계의 입장 차이가 전후 복구 노선 수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공업 중심의 복구 계획은 정부 대표단의 모스크바 방문을 계기로 수정되었다. 복구 자금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는 소련 원조의 용처 협상 결과, 기존에 계획된 중공업 기업소의 복구 외에 경공업 기업소의 신설이 추가 합의되었기 때문이다. 인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경공업에 대한 투자를 강조한 ‘신노선’의 수용을 동유럽 각국에 강요하고 있던 소련공산당 지도부는 이를 북한 지도부에게도 직접 관철시켰다. 또한 소련 측은 과도한 공업화를 예상한 3개년계획의 수정을 요구하였다. 그 결과 소련 방문 이후 열린 제6차 최고인민회의에서 전후 복구 방침은 “민족공업의 균형적 발전”으로 정리되었다.

그 동안 경공업 중시 노선의 대두로 알려진 것과 달리 1954년 3월 전원회의에서의 내각 개편은 김일성이 주도한 것이었다. 당 부위원장 박창욱과 김일의 내각 진출은 소련에 의해 좌절된 중공업 우선 복구 방침을 3개년계획에 관철시키기 위한 김일성의 포석이었다. 이에 따라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된 3개년계획 법령에서는 “3개년계획 초안”에 비해 중공업 부문 목표가 다소 확대되었다. 중공업 우선 발전과 급진적 사회주의 개조를 추구한 당 내부의 압력은 1954년 하반기 시작된 대중적 농업협동화운동에서 1955년 ‘4월 테제’의 발표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을 통해 분출할 것이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당시 전후 복구 노선 수립을 둘러싼 대립 구도는 당내 주류와 비주류(연안계·소련계)보다는 조선로동당과 소련공

산당 사이에서 형성되었다. 정전 시기부터 연안계와 소련계가 경공업 중시 세력 또는 비주류를 형성하여 김일성 및 주류와 대립하고 있었다는 통념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1950년대 당내 파벌 대립을 고정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도식적 이해보다는 시기와 사안에 따라 협력·갈등하는 지점을 포착하는 역사주의적 이해가 유용하다고 본다.

아울러 1950년대 북한의 사회주의 이행과 공업화 노선의 형성에 소련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보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당내 갈등보다 북·소 갈등을 중심으로 북한 경제 정책의 변화를 이해하고자 하였지만, 1953년 9월 북·소 회담의 내용, 소련이 북한의 경제 정책에 개입한 의도 등 밝히지 못한 부분이 많다.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에 천착함으로써 북한 체제의 형성 문제를 국제관계의 맥락에서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접수: 10월 31일 / 수정: 12월 3일 / 채택: 12월 7일

참고문헌

1. 북한 자료

1) 단행본

『조선 로동당 력사 교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4).

『조선중앙연감 1954~1955년판』(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6).

『전후 우리 당 경제 건설의 기본 로선』(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1).

김일성, 『전후 인민경제 복구발전을 위하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6).

_____, 『김일성 선집』 4·5(제2판)(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0).

박용운, 『변영의 길』(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200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령 및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정령집(三)』.

2) 기타 자료

『근로자』.

2. 국내 자료

1) 단행본

국사편찬위원회 엮음, 『북한관계사료집』 30(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8).

_____, 『북한관계사료집』 73(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13).

국토통일원, 『북한최고인민회의자료집』 I(서울: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1988).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서울: 역사비평사, 2001).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서울: 선인, 2005).

시모토마이 노부오(下斗米 伸夫), 『모스크바와 김일성: 냉전기의 북한 1945~
1961』, 이종국 옮김(서울: 논형, 2012).

이태섭, 『북한의 경제위기와 체제변화』(서울: 선인, 2009).

임은, 『북한 김일성왕조 비사: 김일성 정전』(서울: 한국양서, 1982).

주보크, 블라디슬라프 M.(Vladislav M. Zubok), 『실패한 제국 1: 냉전 시대 소련의

역사』, 김남섭 옮김(파주: 아카넷, 2016).
찌모쉬나, 따찌야나 미하일로브나(Tatiana Mikhailovna Timoshina), 『러시아 경제사』, 이재영 옮김(서울: 한길사, 2006).

2) 논문

김보미, “북한의 전후복구 시기 사회주의 진영의 원조와 ‘주체’의 제기,” 『아세아 연구』, 56권 4호(2013), 305~341쪽.
백준기, “1950년대 북한의 권력갈등의 배경과 소련,” 『1950년대 남북한의 선택과 굴절』(서울: 역사비평사, 1998).
윤경섭, “1950년대 북한의 정치갈등 연구”(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조수룡, “전후 북한의 사회주의 이행과 ‘자력갱생’ 경제의 형성”(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3. 국외 자료

1) 단행본

Borhi, László, *Hungary in the Cold War, 1945-1956: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Budapest: Central European University Press, 2004).
Szalontai, Baláz, *Kim Il Sung in the Khrushchev Era: Soviet -DPRK Relations and the Roots of North Korean Despotism, 1953-1964*(Washington, D.C.: Woodrow Wilson Center Press with Stanford Univ. Press, 2005).
Suh, Dea-Sook, *Korean Communism 1945-1980: A Reference Guide to the Political System*(Hawaii: University Press of Hawaii, 1981).

2) 논문

小此木政夫, “北朝鮮における対ソ自主性の萌芽 1953~1955: 教条主義批判と‘主体’概念,” 『アジア經濟』, 第13卷 7号(1972), pp.38~54.
Okonogi, Masao, “North Korean Communism: In Search of Its Prototype,” in Suh Dae-Sook, *Korean Studies: New Pacific Currents*(Hawaii: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4), pp.177~205.

Person, James F., ““We Need Help from Outside”: The North Korean Opposition Movement of 1956,”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Working Paper* #52(Washington, D.C.: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2006).

3) 기타

“Report from a Conference Organized by the Government of the DPRK on the Issue of Implementing the Plan of Reconstruction for Pyongyang,” June 05, 1953, History and Public Policy Program Digital Archive, Polish Foreign Ministry Archive(<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4954>).

“Report of the Embassy of the People’s Republic of Poland in Korea,” July 16, 1953, History and Public Policy Program Digital Archive, Polish Foreign Ministry Archive(<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4953>).

АВПРФ, ф. 0102, Действующая промышленность КНДР и возможности ее восстановления(Июнь 1953 года).

_____, ф. 0102, Структур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аппарата КНДР(август 1953 г.).

_____, ф. 0102, Протокольная запись совещания дипкорпуса в КНДР по вопросу о взаимном обмене информацией относительно выполнения соглашений по безвозмездной помощи Кореи(24 января 1956 года).

_____, ф. 0102, оп. 4, п. 47, д. 72, СПРАВКА о размерах помощи, оказываемой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е Советским Союзом и Китаем(15. XII. 53.).

_____, ф. 0102, оп. 9, п. 44, д. 4.

_____, ф. 0102, оп. 10, Основные показатели к составлению проекта 3-летнего плана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и развития народного хозяйства КНДР на 1954-1956 г.г., одобренные кабинетом министров КНДР(6-7 февраля 1954 г.)

_____, ф. 0102, оп. 10, О трехлетне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плане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и развития народного хозяйства КНДР на 1954-1956 г.г.(31 мар

та 1954 г.)

_____, ф. 0102, оп. 10, п. 52, д. 8, Дневник посла СССР в КНДР Суздалева С. П. с 1 по 31 января 1954 г.

_____, ф. 0102, оп. 10, п. 52, д. 8, Дневник временного поверенного в делах СССР в КНДР Лазарева С. П. с 1 по 24 апреля 1954 г.

_____, ф. 0102, оп. 10, п. 58, О некоторых трудностях восстановительного периода в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е(26 июля 1954 года)

_____, ф. 0102, оп. 10, п. 58, д. 50, О Выполнении народнохозяйственного плана КНДР за первое полугодие 1954 года(сентябрь 1954 год)

_____, ф. 0102, оп. 10, п. 58, д. 50, Справка о положении в КНДР(1954. 12. 18.).

_____, ф. 0102, оп. 11, п. 65, д. 45, Справка о положении в КНДР(17 января 1955 года).

_____, ф. 0102, оп. 14, п. 75, д. 6, Дневник Посла СССР в КНДР А. М. Пузанова за период с 9 по 28 апреля 1958 г.

АПРФ, ф. 3, оп. 65, д. 779.

РГАНИ, ф. 5, оп. 28, д. 410.

Influence or Intervention?: North Korea's the Three-Year Plan for Postwar Reconstruction (1954~56) and Malenkov's 'New Course'

Jo, Sooryong(Kyunghee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Three-Year Plan for Postwar Reconstruction(1954~56) and reviews the role of Malenkov's "New Course."

The adoption of the three-year plan, which forecasts restoration with a emphasis on the light industry, was not the result of the attitude of the Yan'an fraction or minorities in the Korean Workers' Party (KWP). Before the North Korean government delegation visited Moscow in September 1953, the reconstruction plan was drafting with heavy industry priority. During the visit, Moscow claimed to establish new light industry enterprises using part of the aid and to revise of the three-year plan which forecasted excessive industrialization. As a result, the 7th Supreme People's Assembly in April 1954, adopted the three-year plan legislation which given priority to light industry.

These facts show that the conflict over the postwar reconstruction line was formed between the KWP and the CPSU rather than within the KWP. In addition, the myth that the Yan'an fraction and the Soviet fraction had formed a opposition since the armistice and were in conflict with Kim Il Sung should be reconsidered.

Keywords: the Three-Year Plan for Postwar Reconstruction, soviet aid, Malenkov's 'New Course', Kim Il Sung, Park Ch'ang-ok